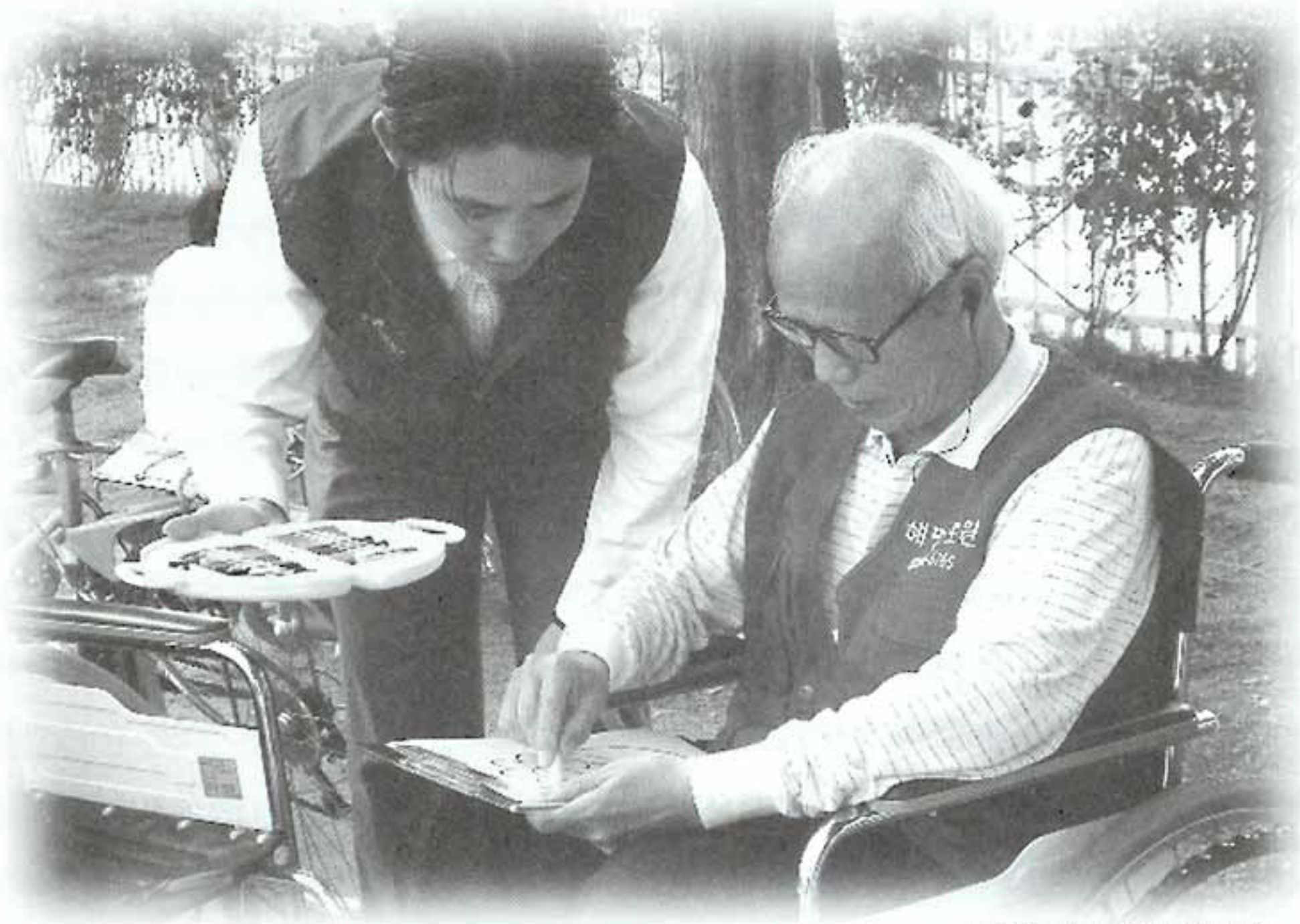


# 보살의 길

2006년 여름호 제26호



SK네트웍스의 공원산책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 산寺와 대장금



진관 사무국장

**열**마 전에 집사람과 전라북도 부안을 내려갈 일이 있어 갔다. 불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부안군에 소재한 내소사를 들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절 입구로 향했다. 거의 어느 절이나 그렇지만 절을 올라가는 길 양옆에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가 준비하게 손님을 손짓하고 있었다, 마치 장터를 방불케 하는 시끄러움이 절앞을 어지럽게 한다. 큰 절을 갈 때마다 느끼는 입구에서의 무언가 개운치 않음이 여기서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장터 같은 상가를 지나 조금 올라가니 일주문이 나타난다. 나는 절 방향을 향해 합장을 하고 일주문을 지나니 아! 이런 상쾌함이 있다. 길 양쪽으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빼곡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다. 조금 전 절앞 상가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비로써 산사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다. 도시의 탁한 공기만 마시다가 여기에 들어서니 폐가 시리도록 시원하고 숲의 향기가 우리를 취하게 한다. 아름드리 전나무 사이로 햇빛이 뚫는데 마치 그 빛이 에메랄드의 빛을 보는 듯 부챗살 모양 퍼져 내려 신비감을 더한다. 조금 더 올라가자 돌다리가 나타나고 그 때부터 향을 사르는 그윽한 향내음이 심신을 평화롭게 한다. 다리를 건너 사천왕사로 향하는 데 왼쪽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여 떠들며 사진기를 들이대고 너도 나도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른다. 호기심이 나서 그리로 가봤더니 사람 키의 세배쯤 되는 뽕나무를 배경으로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별로 특별히 좋은 경치는 아닌데 왜 그러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나무 중

턱에 모양을 내서 깎은 널판을 매달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장금 촬영한 곳”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TV 연속극 “대장금”을 여기서 일부를 촬영했던가 보다, 연속극을 보긴 보았으나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절과 대장금이라! 영 어울릴 것 같지 않다. 대장금을 촬영했다는 이 사실과 장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입소문으로 퍼져 기념촬영을 하려고 그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경건하고 경외감을 느껴야 할 산사에서 어떤 상술을 느낀다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다. 절주의 생각이든 부안군의 아이디어든 시중의 유행을 따라 관광객을 유인하여 이재를 도모할 이유가 아니었을까? 아니라면 곱게 자라 초록의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가 못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누더기가 되는 것을 방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물론 절이나 부안군만을 탓할 수는 없다, 절을 찾는 불자나 관광객의 무질서와 무지를 아니 탓할 수 없다. 나는 대웅전에 올라 부처님께 참배를 하며 이렇게 기원했다.

“저 무지한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눈뜬 소경이 되거나 저들에게 사천왕의 방망이로 볼기를 치게 하소서”

빌고나니 답답한 가슴이 시원한 것 같다. 나는 “대장금과 산사라” 어찌면 잘 어울릴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 절로 “허허”하고 헛웃음을 할뻔엔 부처님이 노할 것 같아 얼른 입을 다물고 내려오자니 시중의 때가 이 경건하고 적묵한 곳까지 이름에 이것도 부처의 자비가 아닌가라고 위로를 삼을 수밖에-



# 어르신들과의 짧은 만남



권금화 실습생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과만 지내서 어르신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하며 첫인사를 드리던 날 반겨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부모님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부모님도 종이 접기를 하자고하면 선 맞추기 힘들어하고 뽀뽀해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을 하시며 가끔 힘들다 짜증도 내시고, 가끔은 너무 쉽다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는 것이 아이들과 프로그램 할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도 했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셔도 적극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사람이 그리우신 듯한 느낌도 받았다. 안쓰럽기도 하고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심에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였다.

어머니, 아버지께 하듯 편하게 잘해드려야지 결심을 했지만 마음만큼 행동으로 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모습에 어르신들께 너무 죄송하다.

서류 작성하는 법을 배우면서 '항상 하던 것인데 별거 아니겠지' 라고 했던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공문서에 써야하는 글의 내용도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생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함을 느꼈다.

보육원에서만 생활을 했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 권금화선생님:** 현재 혜명보육원에서 4년차로 일하고 있으며 명지대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12주 과정 중입니다.



# 웃는 모습



김 향 신  
(밀그림색칠봉사자)

**길** 가는 이에게 길을 물었을 때 친절하게 웃으면서 안내해 주면 고맙고 즐거운 것처럼 나또한 봉사로 상대방을 대할 때 평소보다 더 웃는 낯으로 더욱 친절하게 봉사에 임하게 되어 봉사한 하루는 어느 날보다 더욱 즐겁습니다.

금천구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혜명양로원처럼 소외된 어른들이 노년을 편히 쉬며 즐겁게 생활하는 양로원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혜명양로원에 처음 방문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집에 있을 즈음 봉사

단체의 권유로 였습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방문할 때 마다 어르신을 보면서 도움을 드리기 보다는 제자신이 도리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 왔던 것 같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맞을 것인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의 의미 등 자원봉사를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른들에게 색칠봉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도하는 색칠보다 어른들이 저에게 보내는 밝은 웃는 모습은 언제나 기분 좋은 웃음입니다.

순수하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봉사하는 삶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되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주일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는 어른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양로원의 봉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 혜명한마당



| 찬불가 배우기 |

매달 4째주 토요일엔 찬불가 배우기 시간이 있습니다. 찬불가는 합창단 단원들이 나와서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즐겁게 불러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찬불가 시간을 어른들이 더욱 좋아 하신답니다.



| 원예작동 |

5월 앞마당에 예쁜 베고니아와 분꽃을 심었습니다. 호미질을 하면서 어른들의 얼굴에 화색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 어느때 보다도 흙을 만지는 모습이 잘 어울립니다.



| 결핵검진 |

5월3일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검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받는 결핵검진은 단체생활을 하는 우리어른들에게 꼭 필요한 검진입니다. 우리어른들 모두 건강하세요.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

4월27일 시설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작년결산과 올해의 사업계획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과 원운영 전반에 걸친 대화로 이루어진 시간은 우리양로원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카네이션 달기 |

어버이날 아침 혜명보육원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날 아침이면 양로원을 찾아 오는 보육원 아이들. 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활을 성실히 하여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래봅니다.



| 구강검진 |

5월18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어르신 구강검진을 나왔습니다. 잇몸질환과 의치관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검진도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어버이날 행사 |

5월 8일 양로원 정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칫 더 외로워지기 쉬운 어버이날 직원모두가 자식이 되어 맛있는 음식도 장만해 드리고 즐거운 여흥시간도 보내드렸습니다.



| 온천나들이 |

로또재단에서 후원하여 시립양로원 어른 90여명과 우리양로원 45명의 어른들이 함께 청주 스타텔과 이천도자기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청주에서 점심, 이천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온 일정은 함께하는 간만의 외출로 시종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공원산책 |

sk네트웍스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근교의 공원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간식도 드시고 그림도 그리는 시간으로 이루어진 일정이었습니다. 봉사자와 일대일로 산책을 다니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손자 손녀와 함께 다니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았습니다.



# 혜명동정

##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 입소대상

### ■ 무료입소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 현재 입소인원 (6월 31일 현재)

- 총61명
- 할아버지 : 28명
- 할머니 : 33명

## ◎ 직원 현황

- 총 16명
-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 2006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 · 지출내역 (2006년 1월~6월)

수입		지출	
후원금 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역사회 후원금품	16,494,884	사무비	7,991,730
		사업비	8,547,290
		프로그램 사업비	243,490
합계	16,494,884	합계	16,782,510

- ▶ 4.20 지관총무원장스님 방문  
조계종 지관 총무스님께서 양로원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 5.25 정상명대검찰총장 방문  
정상임 총장과 법원직원10명, 명예검사 텔런트 최수종씨가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 자원봉사자

2006년 4월 1일 ~ 2006년 6월 30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김향신·이문자·이양수·안정희·정현주(밀그림 색칠), 문덕녀(대림미용실), 안양교도소이발, 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 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박경희, 민귀남), 윤순재(사랑의모임 국악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 고다현(물리치료), 대한적십자사시흥동 회원님들, 건강제조(임지현), 백산초등학교6학년, 백련사신도님들, 천종임(민요), 박성은, 고수경(미술활동), 기업은행강서지역직원들, 국민의료보험공단, GS건설, 김하늘(차밍댄스), SK네트웍, 묵향법사,혜명회(찬불가봉사팀), 국민은행직원, 금강정사 학생회

###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 물 품 후 원

반양회, 금천푸드뱅크, 인천보살님, 조리사협회, sk네트워크.백련사, 혜명보육원, 혜명회(찬불가 봉사팀), 현성정사정애보살, 이재임,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진병석, 백산초등학교, 이승희, 한국 시민자원봉사대, 대검찰청, 이금정삼진섬유, 국민은행, 영등포교도소, sk네트웍스, 박민길

#### 지 로 후 원

백승풍 20,000	안정희 20,000	은선사 20,000	윤재순 90,000	이재임 10,000	연홍구 50,000
서현종 20,000	임옥수 450,000	구충수 450,000	구희관 30,000	김기영 400,000	구희관 30,000
문금자 10,000	조관우 20,000	이애자 30,000	석혜영 10,000	한독병원 30,000	구봉순 30,000
장애자 90,000	김혜광 20,000	독지가 30,000	이정호 15,000	은선사 10,000	
한지택 100,000	문정희 1,234,000				

#### 현 금 후 원

국민은행금천지점 10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70,000	대림라이온스클럽 600,000
최순업 30,000	박해림 20,000	윤숙현 310,000
최형기 20,000	구수미 200,000	박두영 200,000
독지가 200,000	검찰청 100,000	증권선물거래소 600,000
까르푸 56,630	서울시어버이날위로금 640,000	박의환 100,000
박양희 30,000	김진옥 20,000	롯데마트금천점 40,900
		국영호 60,000
		권기상 100,000
		박성수 60,000
		이복자 20,000
		조계사 1,000,000
		박종복 100,000
		김향숙 200,000

♥♥♥ 늘 양로원을 잊지 않고 정성껏 후원금을 내주시는 후원자님, 어르신들의 생필품, 간식, 부식등 후원품을 가져다 주시는 후원자님, 또 하루 일과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자원봉사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두루 건강하고 화목하시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 지로번호 : 640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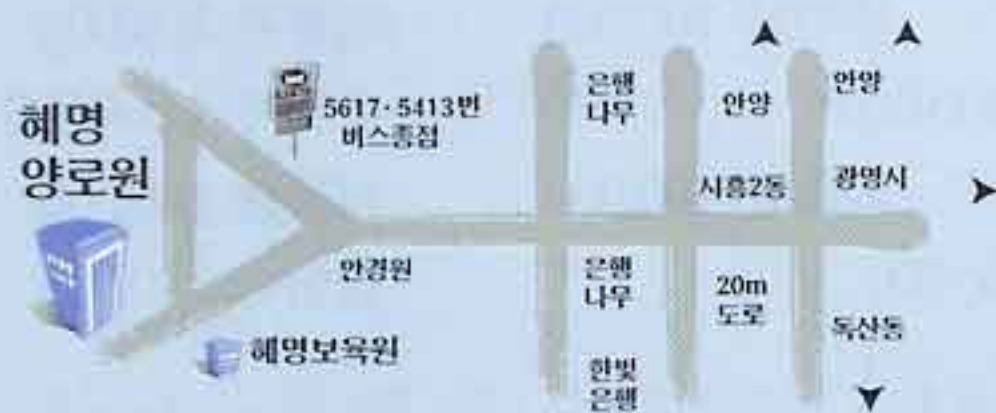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 금천 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http://www.hmtown.or.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